

삼성전자, 8세대 LCD 라인 증설

탕정공장에 4846억원 투자 ... 2010년 상반기 단독소유 라인 대상

삼성전자가 탕정공장의 8세대 LCD(Liquid Crystal Display) 생산라인 증설에 4800억원을 투입한다.

삼성전자는 12월14일 이사회 경영위원회에서 아산 탕정공장의 8세대 LCD 생산라인 증설에 4846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탕정에는 2200 X 2500mm 크기의 유리기관을 가공 처리할 수 있는 8세대 라인으로 삼성전자 단독 소유 및 소니-삼성전자 합작법인인 S-LCD 소유 라인이 있다.

삼성전자는 단독 소유한 라인에서 2010년 상반기 중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LCD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산능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기존 8세대 라인을 증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15>